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에 대하여*

愼 鏞 權**

<目次>

I. 머리말	IV.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入聲 표기
II.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左右音의 차이	V. 濁音 및 入聲 표기와 《翻譯老乞大》 左右音의 성격
III.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 표기	VI. 맺음말

I. 머리말

朝鮮 中宗朝에 崔世珍이 편찬한 《翻譯老乞大》는 老乞大諺解書 뿐 아니라 譯學書諺解로서도 최초의 문헌이다.¹⁾ 이 책의 체제는 구절단위로 漢語의 原文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된 諺解文을 붙이며 둘 사이의 경계는 圈標로 표시하는데, 특히 漢語原文의 각 漢字 밑에는 한글로 左右에 漢語音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左右音 표기 방식은 이후에 간행된 《老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1) 이 책에 대하여 《翻譯老乞大》라는 書名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본고에서는 顯宗本 《老乞大諺解》와의 구별을 위해 관례를 따라 본 書名을 사용한다. 또한 자주 쓰이는 문헌명은 다음과 같이 문헌명과 약칭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翻譯老乞大》 = 《翻譯老》, 《翻譯朴通事》 = 《翻譯朴》, 《洪武正韻譯訓》 = 《譯訓》, 《四聲通攷》 = 《通攷》, 《四聲通解》 = 《通解》.

乞大》, 《朴通事》의 諺解書와 類解書 등 많은 漢學書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漢字 밑에 한글로 左右에 표기한 漢語音 중에서 좌측음은 《四聲通攷》의 漢語 注音이고 우측음은 漢語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적인 字體로 표기한 注音으로 간주되어 왔다. 필자는 이 문헌에 나타난 左右音의 성격에 대하여 그간 줄고(2004)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왔으며 본고 역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音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시대에 따른 음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범음인 좌측음보다 시대에 따른 漢語音의 변화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우측음에 집중되었다.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의 正音 또는 俗音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좌측음도 訓民正音을 사용한 초기의 외국어 표기라는 점에서 당시 한글 자모의 音價 추정 등 韓國語音韻史 연구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翻老》 左右音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이 注音 자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언어 연구 자료로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翻老》 左右音의 성격을 밝히는 데 濁音과 入聲 표기가 관건이 된다고 보며 이 표기들의 양상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전하는 자료 중에서는 《翻老》에서 처음 보이는 漢語音의 左右 표기 양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濁音과 入聲 표기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左右音의 성격을 파악하여 漢語音韻史 자료로서의 가치와 訓民正音을 사용한 漢語音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주로 濁音과 入聲 표기가 左右音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에 집중하여 고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II.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左右音의 차이

《翻譯老》 漢語原文의 각 한자 밑에 한글로 左右에 전사해 놓은 漢語音은 왼쪽이 漢語規範音인 正音, 오른쪽이 漢語現實音인 俗音으로 나란히 正俗音이라 불렀던 것인데, 이 正俗音에 대한 견해에는 반론도 있다.²⁾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凡例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翻譯老》에서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로 《通攷》의 寫音方式을 따른 것이고 우측음은 이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字體인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聲調 표기를 예로 들면 좌측음에서 《通

2) 리득춘(1994)에서는 凡例의 “書正音於右, 書俗音於左”라는 기록을 기정사실로 하고 《翻譯老》의 左右音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翻譯老》의 좌측음은 《譯訓》 俗音과 일치하여 凡例의 규정과 부합하나 우측음은 《譯訓》의 正音과 일치한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론적으로 《譯訓》 正音과 《翻譯老》 우측음을 꼭 같다고 등호를 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遠藤光曉(1984)도 우측음을 正音, 좌측음을 俗音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翻譯老》, 《翻譯老》의 좌측음은 《通攷》 俗音에 편찬자의 개정을 더한 것이고, 우측음은 일반적인 字體인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음 표기로 보아 좌측음이 俗音이고 우측음이 正音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正音이란 中國人이 사용하는 漢字音 중 《洪武正韻》 등과 같이 당시의 표준음을 반영하는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것인데, 明代의 欽定韻書인 《洪武正韻》은 한국에서 《譯訓》으로 번역되었고 《譯訓》과 《通攷》, 《通解》는 音系나 表記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 결국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正音은 《譯訓》, 《通攷》, 《通解》의 正音이며 이는 대부분 《通攷》의 俗音을 기록하고 있는 좌측음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翻譯老》의 좌측음은 《通攷》의 正音도 아니고 《通攷》의 俗音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반드시 俗音만인 것도 아니어서 《翻譯老》의 좌측음이 구현하는 正音이란 《通攷》의 正音 체계와 같은 漢語規範音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좌측음을 正音이라 칭한다면 다른 含意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翻譯老》에 나타나는 正音의 성격에 대하여 朴炳采(1983), 張馨實(1994), 李敦柱(2003)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口語的 正音”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끄는데 이 용어는 《譯訓》, 《通攷》, 《通解》의 俗音을 전통적인 正音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正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졸고(2004) 참고.

攷》의 旁點을 사용하여 전문가적 표기를 한 것을 우측음에서 國語의 高低에 의거한 聲調 표기를 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즉 우측음은 한국인의 漢語 학습을 위해 調值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한정된 수의 한국어 聲調로 漢語 聲調를 표시한 苦肉之策인 것이다. 左右音은 전사의 정밀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측음과 비교할 때 좌측음은 정밀전사 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調音音聲學적인 측면에서 보면 좌측음을 정밀전사표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우측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밀전사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어 좌측음에서 《通攷》의 字體를 사용하여 본래의 음을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에 의한 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漢語音에 대한 오해를 막도록 조치하고 있다.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이하 老朴凡例) 諺音條에서는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 依國俗撰字之法, 而作字者也.”라 하여 左右音이 서로 다른 표기체계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점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다.³⁾ 左右音의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左右音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左右音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聲母, 韻母 및 入聲韻尾, 聲調로 나누어 유형별로 살펴 보자.

3) 鄭光(1974:19)에서는 凡例의 漢語音 表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좌측음인 譯訓音과 우측음인 崔世珍의 得聞之音을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寫音한 것과의 차이를 규칙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朱星一(2000b:71)에서도 左右音 사이의 차이는 審音 및 표기방식에 있는 것이고 左右音이 반영하는 실제 음계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張馨實(1994:52)에서는 좌측음과 우측음이 표기법에서 차이가 날 뿐 그 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좌측음과 우측음이 동일음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좌측음은 우측음보다는 약간 보수성을 띠는 口語的 正音이라고 하고 있다. 좌측음과 우측음의 音系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언급이나 左右音에서 동일한 음을 각각 다른 寫音方式에 의하여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향이다.

<표 1> 좌측음과 우측음의 표기 차이⁴⁾

1. 聲母

- ① 좌측음에는 濁音 표기가 남아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其 끼 :키
- ② 좌측음에는 齒音 영역에서 齒頭音을 “ㄱ, ㅋ, ㆁ”로, 整齒音을 “ㄷ, ㅌ, ㄴ”로 구분하여 전사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ㄱ, ㅋ, ㆁ”로 구분 없이 전사하고 있다. 예) 保 :채 채
- ③ 좌측음에는 疑母가 “ㅇ”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碍 :해 애
- ④ 좌측음에는 影母가 “ㅎ”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愛 :해 애
- ⑤ 좌측음에는 微母가 “ㄹ”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많은 字들에서 사라졌다. 예) 微 뫼 :위

2. 韻母 및 入聲韻尾

- ① 좌측음에는 入聲韻尾가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吉 깁 기
- ② 좌측음에는 藥韻에서 “ㄹ” 終聲 표기가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다. 예) 嚼 짱 :조
- ③ 좌측음에는 “ㄹ”을 終聲 표기로 쓰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ㄱ, ㆁ”로 표기하고 있다. 예) 卯 :땡 만
- ④ 좌측음에는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에서 “ㄷ”을 終聲 표기로 쓰고 있으나 우측음에는 없으며 韻母 표기에도 변화가 있다. 예) 子 :중 즈
- ⑤ 歌戈韻의 韻母 예) 鵝 어 :오
- ⑥ 기타 韻母의 표기 차이와 文白音의 차이 등

3. 聲調

		在左字			在右字	
四聲		清濁	調値의 설명(凡例)	旁點	在左字와의 비교(凡例)	旁點
平聲	陰	全清 次清	輕呼而稍擧	無點	如國音去聲之呼/ 其呼與國音去聲相似	1點
	陽	全濁 不清不濁	先低而中按 後厲而且緩	無點	如國音上聲之呼/ 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2點

4) 좌측음과 우측음의 표기 차이와 관련된 표는 졸고(2004)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韻母 부분을 보충하고 聲調 부분을 첨가하여 다시 제시한다.

仄聲	上	低而安	2點	如國音平聲之呼/ 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無點
	去	直而高	1點	與同國音去聲之呼/ 與國音去聲相同	1點
	入	直而高	1點	呼如去聲	1點
		先低後厲而促急	1點	少似平聲濁音之呼	2點

<표 1>에서 보이는 左右音의 차이 중 일부 항목에서 좌측음이 정밀전사적 경향, 우측음이 간략전사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다. 凡例에서 좌측음은 “通攷所制之字”이고 우측음은 “國俗撰字之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崔世珍에 의해 행해진 《四聲通解》 今俗音과 《飜老》 우측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 보아도 音系사이의 차이라기보다는 표기방식상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左右音도 분명히 표기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1>에 보이는 左右音의 차이를 모두 표기상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본다면 左右音의 차이는 세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밀전사와 간략전사의 차이이다. <표 1>에 제시된 것 중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와 齒音系 글자의 聲母 표기, “ㄹ” 終聲 표기 등이 이에 속한다. 老朴凡例의 기록을 보자.

- (1) “通攷貨字音즈, 註云俗音중. 韻內齒音諸字, 口舌不變, 故以[△]爲終聲然後, 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 若從通考加[△]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 皆去[△]聲, 而又恐其直從去[△]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 加[△]之字於右, 庶使學者必從正音, 用[△]作聲然後, 可合於時音矣.” (老朴凡例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

위 내용은 “支(平)·紙(上)·寘(去)” 三韻에 있는 齒音字에 한하여 《通攷》의 俗音 표기에서 “[△]”을 終聲 표기로 쓴 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初學者가 배우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反譯에서 “△” 終聲 표기를 모두 없앤 후 또한 時音에 맞지 않게 발음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좌측음에 “△” 終聲 표기를 붙인 후 凡例에 明記한 것이다. 齒音의 경우에도 좌측음에서는 본래의 漢語音대로 齒頭音과 整齒音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⁵⁾ 終聲 표기 “ㄹ”도 우측음에서는 初學者가 배우기 쉽게 國俗撰字之法으로 바꾸었다. 이들 左右音은 표기상의 차이만 보일 뿐 동일한音を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예들은 左右音의 표기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줄 뿐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음운변화의 차이와 함께 표기방식상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濁音이나 入聲 표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변화는 漢語音韻史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漢語 음운체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濁音淸化나 入聲소실이라는 현상이 명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음운변화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正音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좌측음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濁音이나 入聲 표기 등의 차이가 음운변화의 차이만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凡例 諺音條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濁音 표기의 문제를 終聲 표기 “ㄹ, ㄴ”의 문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좌측음에서 보존되어 있는 濁音이 우측음에서 모두 淸化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찬자가 이처럼 左右音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5) 《通攷》 凡例에는 齒頭音字와 整齒音字의 구별과 관련하여 “凡齒音, 齒頭則舉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卷舌點齶, 故其聲深. 我國齒聲入ㄹㄴ在齒頭整齒之間, 於訓民正音, 無齒頭整齒之別, 今以齒頭爲△, 以整齒爲△, 以別之.”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通攷》 편찬자는 漢語의 齒頭音字, 整齒音字의 발음위치와 방법 뿐 아니라 심지어는 청각적 인상까지도 정확히 서술하고 있고 현대의 음성학적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韓國語 齒音인 “ㄹ, ㄴ, ㄷ”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다. 따라서 中國語音에 관한 한 世宗代 연구의 영향을 크게 받은 崔世珍이 齒音 영역에 있어 좌측음은 《通攷》의 寫音方式에 충실히 따라 齒頭音을 “△, △, △”로, 整齒音을 “△, △, △”로 전사하고 우측음은 학습자를 위해 일반적인 字體대로 “ㄹ, ㄴ, ㄷ”로 전사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初學者가 익히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漢語音을 알기 쉽게 表音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로서 濁音 표기를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는 음운변화의 문제 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도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 부류에는 濁音 표기, 入聲 표기 이외에도 疑母, 影母, 微母 등의 聲母 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순수하게 음운변화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보면 위의 두 번째 부류의 일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번째 부류가 음운변화의 차이만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歌戈韻의 左右音 표기 차이나 聲調에서의 濁上變去 변화는 표기방식과 같은 요인에 관계없이 음운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濁音과 入聲 표기는 음운변화의 차이와 함께 표기방식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左右音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翻老》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의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左右音의 성격 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III.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 표기

먼저 《翻老》 좌측음에서 全濁音 표기를 갖는 글자의 표기와 이에 대

6) 鄭光(1974)와 張馨實(1994)에서는 歌戈韻의 左右音 표기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張馨實(1994)의 논의는 鄭光(1974)에 기반을 둔 것인데, 歌戈韻에서 左右音의 반영음이 다른 이유는 이韻이 당시 음운변화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인데 우측음에는 변화를 입은 것이나 입지 않은 것이나 注音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좌측음에는 변화입기 전의 음으로만 注音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口語的正音인 좌측음에서는 음운변화를 완전히 마친 음은 正音으로 규정하여 그 변화된 음을 반영하였으나 변화과정에 있었던 음은 변화입기 전의 음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는 左右音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흥미 볼 만한 언급이다. 濁上變去 변화는 濁音 변화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나 《翻老》에서 全濁音 上聲은 모두 다른 성조인 去聲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성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세 번째 부류에 포함하였다.

응하는 우측음에서의 표기 상황에 의거하여 字母, 聲調, 清濁, 韻尾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翻譯老》 좌측음에서의 全濁音 표기 및 대응하는 우측음 표기

1. 群(ㄱ[g])

[좌측음]

(平聲) {陰} 茄, 癩, 衢, 騎, 其, 碁, 橋/ {陽} 勤, 群, 裙, 強

(上聲) {陰} 妓, 舅/ {陽} 件, 近₁

(去聲) {陰} 具, 舊/ {陽} 姪, 近₂, 競, 共

(入聲) {入} 及, 極

[우측음]⁷⁾

(陰平)

(陽平) <次清(ㄱ)> {陰} 茄, 癩, 衢, 騎, 其, 碁, 橋/ {陽} 勤, 群, 裙, 強

(上聲)

(去聲) <全清(ㄱ)> {陰} 具, 妓, 舅, 舊/ {陽} 姪, 件, 近₁, 近₂, 競, 共/

{入} 及, 極)

2. 定(ㄷ[d])

[좌측음]

(平聲) {陰} 馳, 馱, 擡, 題, 提, 蹄, 桃, 逃, 萄, 條, 調, 茗, 頭, 投/ {陽} 聒, 彈, 田, 團, 堂, 唐, 糖, 停, 廷, 同, 銅, 筒

(上聲) {陰} 塚, 肚, 待, 弟, 道, 稻/ {陽} 但, 動

(去聲) {陰} 大, 惰, 渡, 袋, 第, 兌, 地, 盜, 豆/ {陽} (淡), 段, 鈍, 錠, 定, 伺

(入聲) {入} 達, 迭, 特, 糴, 讀

[우측음]

(陰平)

(陽平) <次清(ㄷ)> {陰} 馳, 馱, 擡, 題, 提, 蹄, 桃, 逃, 萄, 條, 調, 茗, 頭, 投/ {陽} 聒, 彈, 田, 團, 堂, 唐, 糖, 停, 廷, 同,

7) 우측음에서 入聲은 1點 또는 2點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平聲, 上聲, 去聲 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우측음의 去聲(1點)과 陽平(2點) 부분에서 {入聲韻}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銅, 筒/ (入) (ㄷ) 達, 迭, 特)

(上聲)

(去聲) <全清(ㄷ)> {陰} 大, 塚, 惰, 肚, 渡, 待, 袋, 弟, 第, 兌, 地, 道, 稻, 盜, 豆/ {陽} 淡, 但, 段, 鈍, 錠, 定, 疍, 動/ (入) 糴, 讀)

3. 並(ㅁ[b])

[좌측음]

(平聲) {陰} 婆, 葡, 排, 皮, 瓢/ {陽} 盤, 貧, 傍, 朋, 憑, 棚, 平, 評

(上聲) {陰} 部, 婢, 抱/ {陽} 辦, 伴, 拌, 棒

(去聲) {陰} 步, 捕, 罷, 筓, 倍, 被, 避, 鞞, 備, 鼻/ {陽} 辦, 便, 病

(入聲) {入} 拔, 別, 脖, 薄, 蔔, 白, 帛

[우측음]

(陰平)

(陽平) <次清(ㄷ)> {陰} 婆, 葡, 排, 皮, 瓢/ {陽} 盤, 貧, 傍, 朋, 憑, 棚, 平, 評/ (入) (ㄷ) 拔, 別, 薄, 白, 帛)

(上聲)

(去聲) <全清(ㅁ)> {陰} 部, 步, 捕, 罷, 筓, 倍, 婢, 被, 避, 鞞, 備, (鼻), 抱/ {陽} 辦, 辦, 便, 伴, 拌, 棒, 病/ (入) 脖, 蔔)

4. 奉(ㅂ[v])

[좌측음]

(平聲) {陰} 扶, 肥, 浮/ {陽} 凡, 繁, 房, 防, 逢, 縫

(上聲) {陰} 父

(去聲) {陰} 附, 婦/ {陽} 犯, 飯, 糞, 分, 鳳

(入聲) {入} 乏, 罰, 服

[우측음]

(陰平)

(陽平) <全清(ㅂ)> {陰} 扶, 肥, 浮/ {陽} 凡, 繁, 房, 防, 逢, 縫/ (入) 乏, 罰)

(上聲)

(去聲) <全清(ㅂ)> {陰} 父, 附, 婦/ {陽} 犯, 飯, 糞, 分, 鳳/ (入) 服)

5. 從(ㄸ[dz])

[좌측음]

(平聲) {陰} 材, 財, 裁, 纜, 齊, 瓷, 槽/ {陽} 錢, 前, 全, 藏, 曾, 情, 從

(上聲) {陰} 坐, 在, 皂/ {陽} 漸, 盡

(去聲) {陰} 聚, 自, 孛, 字, 就/ {陽} 暫, 賤, 臟, 淨

(入聲) {入} 雜, 集, 截, 絕, 疾, 昨, 嚼, 賊

[우측음]

(陰平)

(陽平) <次清(ㄸ)> {陰} 材, 財, 裁, 纜, 齊, 瓷, 槽/ {陽} 錢, 前, 全, 藏,
曾, 情, 從/ ({入} (ㄸ) 雜, 截, 絕, 昨, 嚼, 賊)

(上聲)

(去聲) <全清(ㄸ)> {陰} 坐, 聚, 在, 自, (孛), 字, 皂, 就/ {陽} 暫, 漸,
賤, 盡, 臟, 淨/ ({入} 集, 疾)

6. 邪(ㅅ[z])

[좌측음]

(平聲) {陰} 斜, 辭, 詞, 隨/ {陽} 尋, 旋, 巡

(上聲) {陰} 似, 巳/ {陽} 象

(去聲) {陰} 謝, 遂

(入聲) {入} 襲, 席, 夕

[우측음]

(陰平)

(陽平) <全清(ㅅ)> {陰} 斜, (ㄸ 辭, 隨), 詞/ {陽} 尋, 旋, 巡/ ({入} 席)

(上聲)

(去聲) <全清(ㅅ)> {陰} 謝, 似, 巳, 遂/ {陽} 象/ ({入} 襲, 夕)

7. 牀(ㅈ[d3])

[좌측음]

(平聲) {陰} 茶, 除, 遲, 治₁, 鍾, 朝, 紬, 愁, 酬/ {陽} 沈, 纏, 傳, 船, 陳,
辰, 臣, 長, 腸, 場, 常, 嘗, 承, 程, 成, 城, 盛

(上聲) {陰} 紆, 柱, 趙/ {陽} 丈, 杖, 重

(去聲) {陰} 筋, 助, 住, 滯, 治₂, 值, 驟

(入聲) {入} 鋤, 姪, 着, 直, 軸

[우측음]

(陰平)

(陽平) <次清(ㄸ)> {陰} 茶, 除, 遲, 治₁, 鍾, 朝, 紬, 愁, 酬/ {陽} 沈, 纏,
傳, 船, 陳, 辰, 臣, 長, 腸, 場, 常, 嘗, 承, 程, 成,
城, 盛/ ({入} (ㄸ) 鋤, 姪, 着)

(上聲)

(去聲) <全清(ㄸ)> {陰} 筓, 紵, 助, 柱, 住, 滯, 治₂, (值), 趙, 驟/ {陽} 丈, 杖, 重/ ({入} 直, 軸)

8. 禪(ㄸ[3])

[좌측음]

(平聲) {陰} 匙, 時, 誰, (壽)/ {陽} 神, 晨, 裳, 繩

(上聲) {陰} 社, 是, 柿, 市, 受/ {陽} (甚), 善, 上₁

(去聲) {陰} 斿, 樹, 事, 侍, 睡/ {陽} 慎, 順, 尙, 上₂, 剩

(入聲) {入} 濕, 十, 什, 拾, 舌, 折, 食, 射, 石, 熟, 屬

[우측음]

(陰平)

(陽平) <全清(ㄸ)> {陰} (ㄸ 匙), 時, 誰/ {陽} 神, (ㄸ 晨), 裳, 繩/ ({入} 濕, 舌, 折, 石, 熟)

(上聲)

(去聲) <全清(ㄸ)> {陰} 斿, 社, 樹, 是, 柿, 事, 市, 侍, 睡, 受, 壽/ {陽} (甚), 善, 慎, 順, 上₁, 上₂, 尙, 剩/ ({入} 十, 什, 拾, 食, 射, 屬)

9. 匣(ㅇ[4])

[좌측음]

(平聲) {陰} 何, 荷, 和, 禾, 胡, 湖, 狐, 葫, 瑚, 孩, 頰, 廻, 懷, 毫/ {陽} 酣, 鹹, 嫌, 寒, 韓, 閑, 弦, 還₁, 還₂, 環, 杭, 黃, 惶, 行, 紅

(上聲) {陰} 下₁, 戶, 亥, 後/ {陽} 旱, 限, 項, 巷, 杏

(去聲) {陰} 和, 下₂, 夏, 榦, 害, 械, 會, 壞, 畫, 話, 號, 候/ {陽} 餽, 汗, 翰, 現, 見, 換, 眩, 幸, 橫, 衡

(入聲) {入} 盒, 匣, 褐, 活, 狝, 學, 或, 惑, 核

[우측음]

(陰平) <次清(ㅇ)> {陽} (酣)

(陽平) <次清(ㅇ)> {陰} 何, 荷, 和, 禾, 胡, 湖, 狐, 葫, 瑚, 孩, 頰, 廻, 懷, 毫/ {陽} 鹹, 嫌, 寒, 韓, 閑, 弦, 還₁, 還₂, 環, 杭, 黃, 惶, 行, 紅/ ({入} 盒, 活, 狝, 學, 或, 惑, 核)

(上聲)

(去聲) <次清(ㅇ)> {陰} 和, 下₁, 下₂, 夏, 榦, 戶, 亥, 害, 械, 會, 壞, 畫, 話, 號, 後, 候/ {陽} 餽, 旱, 汗, 翰, 限, 現, 見, 換,

眩, 項, 巷, 杏, 幸, 橫, 徧/ (入) 匣, 褐)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翻譯老》 좌측음에서 全濁音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은 대응하는 淸音에서 全淸, 次淸의 구분이 있는 경우 우측음에서 平聲字들은 次淸의 陽平聲字로, 上聲·去聲字들은 全淸의 去聲字로 변하고 있다. 濁上變去 현상도 명확하여 상당히 규칙적인 음운변화의 대응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全濁音 入聲字가 全淸音으로 변하는 과정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표기상으로는 北方漢語에서 나타난 濁音淸化의 과정이 거의 완성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老朴凡例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 (2) “크트고스ㅎ, 乃通放所用次淸之音, 而全濁初聲之呼, 亦似之. 故今之反譯, 全濁初聲, 皆用次淸爲初聲, 旁加二點, 以存濁音之呼勢, 而明其爲全濁之聲.” (老朴凡例 諺音條)
- (3) “全濁, 群定並奉從邪床禪八母. 平聲, 初呼之聲, 亦歧出雙聲, 而引聲之勢, 中按後厲, 上去入三聲, 初呼之聲, 逼同全淸, 而引聲之勢, 各依三聲之等, 而呼之, 故與全淸難辨. 唯上聲則呼爲去聲, 而又與全淸去聲難辨矣.” (老朴凡例 淸濁聲勢之辨條)

(2)는 全濁 初聲의 발음이 次淸의 음과 같게 되었기 때문에 反譯에서 全濁 初聲에 대하여 대응하는 次淸을 써서 初聲을 삼고 옆에 두 점을 더하여 濁音의 呼勢를 보존케 함으로써 그것이 全濁의 소리임을 밝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3)에서는 8개 全濁 聲母의 平聲은 처음 내는 소리가 岐出雙聲이고 소리를 끄는 힘은 가운데는 누르다가 뒤에 세어지며, 上·去·入 三聲은 처음 내는 소리가 全淸과 거의 같으나 소리를 끄는 힘은 각 세 聲調의 高低에 맞추어 발음하므로 全淸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또한 上聲만은 去聲으로 발음하여 全淸의 去聲과 변별하기 어렵다는 기록을 통하여 濁上變去 현상도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左右音의 濁音 표기에 음운변화의 차이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老朴凡例 기록은 좌측음에서 濁音이 모두 보존되어 있고 우측음에서는 모두 清化하였다는 사실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찬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左右音 표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 (4) “在左者，即通攷所制之字，在右者，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通攷字體，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其用雙字爲初聲，及^ㄹ ㄹ爲終聲者，初學雖資師授，率多疑碍，故今依俗撰字體，而作字如左云。”(老朴凡例 諺音條)

이 기록은 初學者가 익히기 까다로우므로 당시의 漢語音을 알기 쉽게 表音하기 위하여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로서 全濁音 표기를 제시해 주고 있어 여기에는 음운변화의 문제 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도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즉 各自並書는 漢語音을 적는 데 쓸 수 있는 표기이나 李基文(1972:48-4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기는 《圓覺經諺解》(1465)부터 全廢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측음에서 사용한다면 漢語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國俗撰字之法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이다.

그러면 左右音을 통해 규칙적인 濁音清化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凡例에서 이러한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좌측음이 기반을 두고 있는 《通攷》 俗音이 반영하는 15세기 중반의 北方漢語에도 濁音清化가 일어났음은 다음의 《通攷》 凡例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5) 全濁上去入三聲之字，今漢人所用，初聲與清聲相近，而亦各有清濁之別，獨平聲之字，初聲與次清相近，然次清則其聲清，故音終直伍，濁聲則其聲濁，故音終稍厲。(《通攷》 凡例)

이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通攷》 편찬 시기 濁音清化는 분명히 일어났으나 “而亦各有清濁之別”이라는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清濁音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濁音의 변화는 漢語 음운체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濁音清化라는 현상이 명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음운변화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규범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좌측음에서 이전의 濁音字를 清音字로 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濁音清化의 문제를 음운변화만을 반영하는 歌戈韻의 변화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翻譯老》에 나타난 濁音 표기의 양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좌측음은 15세기 중반의 北方漢語음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왜 全濁音 표기를 보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더욱이 《翻譯老》의 좌측음은 《通攷》의 俗音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16세기 초반 저자 崔世珍의 일부 개정을 거친 음이다.⁸⁾ 이는 당시 北方漢語의 언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崔世珍이 좌측음에 濁音 표기를 남겨놓았던 이유가 《洪武正韻》 및 《譯訓》으로 대표되는 規範韻書의 권위에 이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시의 언어 현실에서 濁音清化는 일어났으나 濁音이 어떤 형태로건 남아 있었고 그 기원이 濁音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둘째, 위에서도 지

8) 다음의 표는 소실된 《通攷》와 音系가 일치하는 《譯訓》의 俗音과 《翻譯老乞大·朴通事》 좌측음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총 90字 가까운 예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졸고(2004:253)에도 이 표를 제시하였으나 최종 교정 사항이 편집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에 수정하여 본 부분에 다시 제시한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좌측음은 《通攷》의 순수한 俗音을 반영하지 않는다. 좌측음은 《譯訓》 및 《通攷》의 寫音方式을 기초로 한 俗音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俗音 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자의 개정을 싣고 있다. 改定한 음들은 보다 현실음에 가까운 경향을 보여 준다.

例字	左音	俗音	例字	左音	俗音	例字	左音	俗音
大	·때	·따	關	권	(관)	鴈	·연	·얀
支	·증	·질	謎	·미	·피	顏	연	얀
至	·증	(·질)	減	:견	(:간)	水	:쉬	:실
盤	뻬	(뻬)	哺	·부	(·뿌)	姦	견	(간)

9) 中村雅之(2006a)에서는 좌측음에서의 濁音聲母나 入聲韻尾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통적인 音韻 범주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으나 《通攷》 凡例 등의 기록을

적한 바와 같이 우측음에는 濁音 표기가 아닌 淸音 표기를 하여 濁音淸化의 일반적인 변화 과정을 반영하면서 왜 凡例에서는 또 全濁音 관련 표기에 대하여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만들었다는 언급을 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적인 특성과 함께 《翻老》에 나타난 濁音 표기의 양상이 당시의 北方漢語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漢語에서 濁音 변화가 어떤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崔世珍의 또 다른 저작인 《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에는 《翻老》 우측음과 동일한 시기의 음임에도 불구하고 韻書적 표기라는 성격 때문에 全濁音 표기가 남아있어서 左右音의 濁音 표기 차이를 음운 변화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¹⁰⁾ 좌측음의 濁音 표기는 정밀표기로서의 측면과 언어 현실에서 濁音淸化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의 상태를 반영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측음의 상황과 함께 고려한다면 北方漢語에서 全濁音이 완전히 소실한 시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¹¹⁾

통해 좌측음이 반영하는 15세기중반의 北方音에는 全濁音과 入聲韻尾가 어떤 형태로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10) 姜信沆(1973:68-73)에서는 《通解》 俗音·今俗音의 聲母 가운데 正音의 聲母와 차이가 있는 것은 대부분 疑母와 喻母의 혼동뿐이라고 한다. 《通解》 今俗音은 16세기초의 필자의 得聞之音임에도 불구하고 《翻老》 우측음에 없는 全濁音 표기가 있으며, 全濁音 聲母가 淸音으로 변한 것을 보여 주는 예들도 나타나서 韻書的 표기이지만 全濁音 소실 과정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 11) 全濁音을 各自並書를 사용하여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즉 평음, 격음, 경음으로 구성된 한국어 장애음 체계와 무성음(무기음, 유기음), 유성음으로 구성된 당시 北方 漢語의 장애음 체계를 대비해볼 때 당시 漢語의 유성음을 漢語 전사표기체계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국어의 경음으로 표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나 당시 한국어의 경음과 漢語의 유성음 사이에 어떤 음성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에 영어에서 유성음이 들어간 어휘인 “dance”를 “댄스”, “game”을 “게임”과 같이 발음하는 예가 있음을 상기해볼만하다.

IV. 《翻譯老乞大》에 나타난入聲 표기

《翻譯老》에 나타난入聲 표기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翻譯老》에 나타난入聲의 표기 상황은 北方漢語 音韻史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方言의 상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入聲 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文白音 등 당시 언어 상황의 문제나 中國韻書의 영향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편찬자의 표기 의도와 左右音 표기의 성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翻譯老》 우측음에入聲이 두 종류로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현상이 당시의 어떠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翻譯老》에 나타난入聲 표기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入聲 표기가 左右音의 성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翻譯老》의 좌측음에서 입성 표기를 가지는 글자와 대응하는 우측음에서의 표기 상황을 攝, 韻母, 聲調 표기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표 3> 《翻譯老》에 나타난入聲字 목록¹³⁾

1. 通攝(-u?/-iu?)

- [좌측음] (-u?) 讀, 目, 木, 覆, 輻, 福, 服, 足, 宿, 竹, 粥, 軸, 束, 叔, 熟, 六, 轆, 綠, 鹿, 祿, 肉, 辱 / (-iu?) 玉, 囑, (屬), 畜, 峪
- [우측음] (1點) 讀, 目, 木, 覆, 輻, 福, 服, 足, 宿, 竹, 粥, 軸, 束, 叔, 六, 轆, 綠, 鹿, 祿, 肉, 辱, 玉, 囑, 屬, 畜, 峪 / (2點) 熟

12) 入聲字는 우측음에서 聲調 표기가 1點과 2點으로 되어 있는데 이 聲調 표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므로 본 표에서는 1點과 2點으로만 구분하여 제시한다.

13) 괄호안에 “*” 표시를 한 것은 해당 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인 韻母 구조이다.

2. 江攝(-aw/-iaw/-oaw)

[좌측음] (-aw) 樸₁/ (-iaw) 角, 學/ (-oaw) 卓, 捉, 涿 / (*(-u?) 樸₂)

[우측음] (1點) 樸₁/ (2點) 樸₂, 角, 學, 卓, 捉, 涿

3. 臻攝(-i?/-u?/-iu?)

[좌측음] (-i?) 吉, 乞, 必, 筆, 匹, 疋, 密, 蜜, 七, 漆, 疾, 膝, 姪, 實, 失,
一, 乙, 栗, 日/ (-u?) 骨, 不, 脖, 沒, 物/ (-iu?) 戌, 出

[우측음] (1點) 吉, 乞, 必, 筆, 匹, 疋, 密, 蜜, 七, 漆, 疾, 膝, 實, 失,
一, 乙, 栗, 日, 骨, 不, 脖, 沒, 物, 戌, 出/ (2點) 姪

4. 山攝(-a?/-ia?/-oa?/-ə?/-iə?/-uə?/-iuə?)

[좌측음] (-a?) 達, 八, 拔, 發, 罰, 襪, 咱, 撒, 鋤, 殺/ (-ia?) 瞎/ (-oa?)
刷, 猾/ (-ə?) 割, 渴, 褐, (迭)/ (-iə?) 羯, 結, 鐵, 撇, 別, 節,
切, 折₁, 撤, 斬, 舌, 折₂, 歇, 熱/ (-uə?) 闊, 脫, 潑, 抹, 活/
(-iuə?) 蹶, 缺, 月, 絕, 雪, 拙, 說, 劣/ (*(-i?) 截)/ (*(-ui?)
豁)

[우측음] (1點) 割, 渴, 褐, 羯, 結, 熱, 闊, 潑, 缺/ (2點) 達, 八, 拔, 發,
罰, 襪, 咱, 撒, 鋤, 殺, 瞎, 刷, 猾, 迭, 鐵, 撇, 別, 節, 切, 折₁,
斬, 撤, 舌, 折₂, 歇, 脫, 抹, 豁, 活, 蹶, 月, 絕, 雪, 拙, 說, 劣,
截

5. 宕攝(-aw/-iaw)

[좌측음] (-aw) 各, 閣, 托, 膊, 薄, 莫, 作, 錯, 昨, 索, 惡, 落, 樂, 絡/
(-iaw) 脚, (鵲), 嚼, 着, 約, 藥, 若/ (*(-ə) 却)/ (*(-i?) 脰)

[우측음] (1點) 各, 閣, 膊, 錯, 索, 鵲, 却, 脰/ (2點) 托, 薄, 莫, 作, 昨,
惡, 落, 樂, 絡, 脚, 嚼, 着, 約, 藥, 若

6. 梗攝(-i?/-ii?)

[좌측음] (-i?) 的, 糴, 壁, 覓, 脊, 惜, 席, 夕, 隻, 喫, 尺, 赤, 石, 射, 易,
歷, 糶/ (-ii?) 隔, 客, 百, 伯, 栢, 珀, 白, 帛, 窄, 摘, 核/
(*(-ai?) 脉)

[우측음] (1點) 的, 糴, 壁, 覓, 脊, 惜, 夕, 隻, 喫, 尺, 赤, 射, 易, 歷,
糶, 隔/ (2點) 席, 石, 客, 百, 伯, 栢, 珀, 白, (帛), 窄, 摘, 核,
脉

7. 曾攝(-i?/-ii?/-ui?)

[좌측음] (-i?) 極, 息, 媳, 織, 直, 識, 飾, 食, 力/ (-ii?) 克, 剋, 得, 德,
忒, 特, 北, 蔔, 賊, 濇, 色, 黑, 肋/ (-ui?) 國, 或, 惑

[우측음] (1點) 極, 息, 媳, 織, 直, 識, 飾, 食, 力, 剋, 荀, 肋/ (2點) 克, 得, 德, 忒, 特, 北, 賊, 濼, 色, 黑, 國, 或, 惑

8. 深攝(-i?/-iu?)

[좌측음] (-i?) 急, 及, 集, 襲, 執, 十, 拾, 濕, 什, 揖, 立/ (-iu?) 入

[우측음] (1點) 急, 及, 集, 襲, 執, 十, 拾, 什, 揖, 立, 入/ (2點) 濕

9. 咸攝(-a?/-ia?/-ə?/-iə?)

[좌측음] (-a?) 搭₁, 搭₂, 塌, 塔, 法, 乏, 雜, 閘, 霎, 臘, 蠟, (盒)/ (-ia?)

甲, 恰, 押, 鴨, 壓, 匣/ (-ə?) 合, 喝/ (-iə?) 楪, 帖, 貼, 鑷, 接, 摺, 褶, 涉, 葉

[우측음] (1點) 甲, 恰, 押, 鴨, 壓, 匣, 合, 喝, 摺, 涉/ (2點) 搭₁, 搭₂, 塌, 塔, 法, 乏, 雜, 閘, 霎, 臘, 蠟, 盒, 楪, 帖, 貼, 鑷, 接, 摺, 葉

위의 入聲字 표기 상황에 근거하여 몇 가지 사실을 논의해보자.

첫째, 《翻譯老》에 나타난 入聲 표기 문제를 고찰할 때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잘 파악해야한다. 入聲 표기는 濁音 표기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漢語음을 알기 쉽게 表音하기 위하여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로서 음운변화의 문제와 표기방식의 문제가 함께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좌측음에서는 “ㅇ”이나 “ㄴ(藥韻)”을 入聲韻尾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측음에서는 入聲韻尾가 없는데, 이를 우측음에서 入聲이 소실된 것을 반영한다고 단순하게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우측음에서는 韻尾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平上去 三聲과는 또 다른 표기가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단 《翻譯老》에서 보여준 崔世珍의 표기 원칙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우측음에서 “ㅇ”이나 “ㄴ”과 같은 入聲韻尾를 표시하는 것은 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終聲 표기 “ㄹ, ㅅ”을 우측음에서 사용하지 않은 처리방식을 상기할 수 있다. 우측음이 國俗撰字之法이라는 점에서 《翻譯老》 우측음에서의 入聲 처리방식이 中世國語에서의 入聲 처리방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는 朱星一(2000a: 40)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⁴⁾ 入聲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보자.

14) 金完鎭(1973:2-3)에서는 訓民正音 解例에서 유독 入聲에 대해서만 특별한 加

- (6) “漢音入聲有二音，通攷則皆一點，而反譯則其聲直而高，呼如去聲者一點，先低後厲而促急，少似平聲濁音之呼者二點。”(老朴凡例 旁點條)

위의 기록과 같이 老朴凡例에서 1點을 加點하여 去聲처럼 발음되는 것은 “直而高”라 하고 2點을 加點하여 陽平과 다소 비슷한 것은 “先低後厲而促急”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고, “促急”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음에서도 入聲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측음의 상황은 入聲은 존재하나 어떤 환경에서는 “促急”이라는 성격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좀 더 약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左右音의 표기가 반영하는 入聲의 상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左右音의 入聲 표기를 동일한 음에 대한 표기방식의 차이라고 보기는 일단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翻老》 우측음에서 入聲에 대하여 표시한 두 종류의 표기는 國俗撰字之法이라는 점에서 入聲이 두 종류로 표기된 것이 入聲韻尾가 소실된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표기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陽平(2點)과 去聲(1點)으로 표기된 상황이 모종의 入聲 변화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翻老》 우측음의 상황은 入聲韻에서 陰聲韻으로 가는 과도 단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¹⁵⁾ 《通攷》에서는 15세기 당시의 入聲韻의 상황과 관

點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이는 보통의 완만한 平聲·上聲·去聲에 대하여 그들의 促急한 變種들을 통칭하여 入聲의 범주 아래 넣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는 《翻老》 우측음에서의 入聲 표기도 1點은 “去聲的 入聲”, 2點은 “陽平的 入聲”으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入聲之音，如平聲濁音之呼，而促急，其間亦有數音隨其呼勢而字音亦變焉。如入聲軸聲，本音：궤，呼如平聲濁音，而或呼如去聲爲·궤，角字呼如平聲濁音爲교而或궤，如去聲爲궤，或呼如上聲爲궤，又從本韻거之類。”라는 老朴凡例 漢音條의 기록은 이러한 처리방식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15) 《中原音韻》에서 入聲이 다른 聲調로 分派되는 주요 조건은 聲母의 清濁이며 現代北京語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翻老》 入聲의 주요 分化조건인 高母音 韻母字인가의 여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翻老》 우측음에 나타난 入聲字의 상황이 《中原音韻》 및 現代北京語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清入聲이 上聲으로 派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7) “入聲諸韻終聲，今南音傷於太白，北音流於緩弛。蒙古韻亦因北音，故不用終聲，黃公紹韻會，入聲如以質韻颯卒等字，屬屋韻菊字母，以合韻閤榼等字，屬葛韻葛字母之類，牙舌唇之音，混而不別，是亦不用終聲也。平上去入四聲，雖有清濁緩急之異，而其有終聲則固未嘗不同，況入聲之所以爲入聲者，以其牙舌唇之全清，爲終聲而促急也，其尤不可不用終聲也，明矣。本韻之作併同析異，而入聲諸韻牙舌唇終聲，皆別而不雜。今以ㄱㄷㅂ爲終聲，然直呼以ㄱㄷㅂ則又似所謂南音，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且今俗音雖不用終聲，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故俗音終聲，於諸韻用喉音全清ㄱ，藥韻用唇輕全清ㅃ以別之。”(《通放》凡例)

위의 《通放》凡例 기록은 南方音과 北方音에서의 入聲韻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入聲韻尾가 南方音에서는 분명하고 北方音에서는 促急이라는 성격이 남아 있으나 이미 소실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俗音에서는 終聲 즉 入聲韻尾를 사용하지 않으나 ㅈ·ㅊ·ㅌ의 陰聲韻과 같은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通解》凡例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¹⁶⁾

《韻老》 우측음의 入聲 표기는 現代漢語方言의 예를 통해 보면 일부 江西方言처럼 陰陽으로 분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南京方言처럼 入聲韻尾 -ʔ가 남아있으나 다른 方言보다 韻尾가 약화된 상태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일부의 吳方言이나 閩方言의 경우처럼 入聲韻尾는 소실하였으나 入聲은 남아있는 入聲自成調類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金周生(1985), 竺家寧(1994) 등에서는 宋代 자료에서의 入聲韻尾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에 따르면 -p, -t, -k 入聲

16) “入聲ㄱㄷㅂ三音，漢俗及韻會蒙韻皆不用之。唯南音之呼多有用者。蓋韻學起於江左而入聲亦用終聲，故從其所呼類聚爲門，此入聲之所以分從各類也。古韻亦皆沿襲舊法各收同韻而已。然今俗所呼穀與骨質與職同音，而無ㄱㄷ之辨也。故今撰通解亦不加終聲。通放於諸韻入聲則皆加影母爲字。唯藥韻則其呼似乎効韻之音，故蒙韻加ㅃ爲字，通放加ㅃ爲字，今亦從通放加ㅃ爲字。”(《通解》凡例)

韻尾는 ① -p, ② -t, ③ -k의 순으로 소실되었고 後塞音 -ʔ의 상태를 거쳐 陰聲韻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漢語音韻史에서의 入聲 변화 양상 역시 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現代漢語方言에 나타난 入聲의 양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요 방언에서 나타나는 入聲韻尾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¹⁷⁾

<표 4> 주요 방언에서 나타나는 入聲韻尾의 상황

- ① -p, -t, -k 韻尾를 모두 보존하고 있는 방언 → 廣州, 梅縣, 陽江
- ② -p, -t, -k 韻尾를 보존하면서 일부 자는 -ʔ 韻尾인 방언 → 廈門
- ③ -t, -k 韻尾만 보존하고 있는 방언 → 南昌
- ④ -p, -k 韻尾를 보존하고 있으나 일부 자는 -ʔ 韻尾인 방언 → 潮州
- ⑤ 소수 자에서 -k 韻尾를 보존하고 일부 자는 -ʔ 韻尾인 방언 → 福州
- ⑥ -ʔ 韻尾만 보존하고 있는 방언 → 杭州, 合肥, 揚州, 蘇州, 上海, 南京
- ⑦ 入聲은 있으나 入聲韻尾는 없는 방언 → 邵武, 長沙
- ⑧ 入聲, 入聲韻尾가 완전히 소실된 방언 → 北京, 濟南, 西安, 武漢, 成都

潮州方言과 같은 예외가 있으나 現代漢語方言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① -p, -t, -k > ② -t, -k > ③ -k > ④ -ʔ > ⑤ 入聲自成調類¹⁸⁾ > ⑥ 入聲 완전 소실”의 순서로 入聲이 소실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入聲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을 볼 때 《飜老》 우측음은 入聲이 독립된 聲調로 남아 있고 -ʔ 入聲韻尾가 소실되지는 않았으나 약화된 모종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飜老》 우측음에서 入聲이 두 종류로 표기된 것에 대한 설

17)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1989), 《漢語方音字匯》(第二版), 文字改革出版社. 袁家驊等(1989), 《漢語方言概要》(第二版), 文字改革出版社. 참고.

18) 入派三聲과 入聲自成調類는 다른 개념이다. 入派三聲이란 기존의 入聲字들이 平上去 三聲으로 派入된 것으로 《中原音韻》의 入聲 상황을 기술할 때 쓰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 入聲自成調類란 入聲韻尾는 소실하였으나 入聲이라는 聲調는 남아 있는 상태로 현대의 吳方言이나 閩方言의 일부에서 나타나며 入聲 완전 소실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명이 필요하다. 遠藤光曉(1984:170)에서는 우측음에서 “促急”이라는 기본 성격을 가진 入聲의 分化 조건으로 韻母音이 高母音인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翻譯老》, 《翻譯朴》에 출현하는 290개의 入聲字 중 82%인 237字가 이 分化조건에 부합한다고 한다. 高母音인가의 여부로 入聲이 分化되는 상황은 중국의 音韻史 자료나 漢語方言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分化 조건에 대해서는 더 심화된 고찰이 필요하다.¹⁹⁾ (표3)에 나타난 글자들의 양상을 볼 때 高母音 韻母字인가의 여부 이외에 사실상 다른 주요 分化조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²⁰⁾ 따라서 《翻譯老》 入聲 표기에 대한 고찰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표기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러한 分化가 나타난 원인과 조건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16세기 당시 北方漢語에서 이미 종료 단계에 이르고 있었던 入聲 소실이라는 음운변화의 현실을 《翻譯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와 함께 左右音 표기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翻譯老》 漢語音의 전체적인 모습은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지역에서 통용된 官話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문헌에 나타난 聲調와 入聲의 상황은 現代北京音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그 방언 배경에 의심

19) 《翻譯老》의 음계기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南京方言의 入聲韻尾는 다른 江淮官話나 吳方言의 入聲韻尾보다 약화된 상태를 보여주며 특히 [ɿ, i, u, y] 등 高母音 뒤에서 더욱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江淮官話의 入聲韻尾 -ʔ는 일반적으로 高母音 [i, u, y] 뒤에서 직접 출현하지 않는데, 南京方言에서는 高母音 入聲韻인 [iʔ, uʔ, yʔ]가 나타난다. 따라서 南京方言에서 高母音 入聲字는 다른 入聲字에 비해 陰聲韻化가 더욱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翻譯老》에서 高母音 入聲字에 일반적으로 1點(去聲)을 표기하였는데, 老朴凡例에서 2點(陽平)의 入聲字와는 달리 1點(去聲) 표기에는 “促急”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현상이 《翻譯老》 우측음에서 高母音에 따라 入聲이 分化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0) 遠藤光曉(1984:171-172)에 따르면 이 分化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例外字에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非高母音의 牙喉音字 중 1點이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聲母의 清濁이 分化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誤刻에 의한 소수의 例外字가 있다.

을 품게 한다. 北方漢語를 반영하는 《翻老》에 나타난 聲調와 入聲의 상황이 北方方言의 중심인 現代北京方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翻老》의 聲調 및 入聲 표기가 15, 16세기경의 北方漢語音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당시의 北京方言이 아닌 北方方言의 다른 하위방언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北方方言의 하위방언들에 대한 폭 넓은 고찰이 필요하며 《翻老》의 入聲 표기가 당시의 北方漢語 聲調를 반영한다면 당시의 언어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V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V. 濁音 및 入聲 표기와 《翻譯老乞大》 左右音의 성격

본 절에서는 《翻老》에 나타난 左右音의 성격을 濁音 및 入聲 표기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 방식의 차이로 좌측음은 《四聲通攷》의 전사음인 “通攷所制之字”이고 우측음은 訓民正音의 合字例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漢語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字體인 “國俗撰字之法”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全濁音의 경우 좌측음에서의 표기인 各自並書는 漢語音을 전사하는 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기이나 《翻老》 편찬 당시 이미 사용되지 않던 표기였기 때문에 우측음에서 사용하다면 漢語를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入聲의 경우에도 《翻老》에서 보여준 崔世珍의 표기 원칙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우측음에서 “ㄴ”이나 “ㄹ”과 같은 入聲韻尾를 표시하는 것은 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측음과 비슷한 시기의 음을 적은 《通解》의 今俗音에도 俗音과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全濁音 표기와 入聲韻尾 “ㄴ, ㄹ”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측음은 韻書的 표기인 《譯訓》, 《通攷》, 《通解》의 俗音, 今俗音과는 다른 계통의 전사 방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左右

음의 표기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밀표기와 간략표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좌측음에서 《通攷》의 字體(정밀표기)를 사용하여 본래의音を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간략표기)에 의한 표기를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中國語音에 대한 오해를 막도록 조치한 것이다. 정리해 보면 좌측음은 정밀전사표기이고 전문가를 위한 표기이며 韻書의 표기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우측음은 간략전사표기이고 漢語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표기이며 漢語 학습서 표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즉 濁音 및 入聲 표기에서 전통적인 韻書의 표기법과 학습자를 위한 편찬자의 현실음에 대한 표기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²¹⁾

둘째, 左右音은 음운변화의 반영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좌측음은 음운변화 과정 중의 語音을 반영하지 않는 규범음의 성격을 가진 반면 우측음은 비록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좌측음에 비해서는 음운변화의 과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반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좌측음이 正音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본래 《翻譯老》의 左右音은 표기방식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실제 音系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러한 左右音의 성격 차이 때문에 18세기 刊本 老乞大諺解書에서는 좌측음이 오히려 韻書의 正音에 가깝게 회귀하고 우측음은 생생한 음운변화를 반영함으로써 左右音의 音系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벌어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²²⁾

21) 《翻譯老》 좌측음이 근거하고 있는 《譯訓》 및 《通攷》의 俗音은 韻書의 표기이나 “乃命臣等，就正中國之先生學士，往來至于七八，所與質之者若干人。燕都爲萬國會同之地，而其往返道途之遠，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以至殊方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莫不與之相接，以盡正俗異同之變。且天子之使至國，而儒者則又取正焉。”이라는 《譯訓》 序文의 기록을 통해 《譯訓》 및 《通攷》의 正·俗音 역시 중국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군인, 종교인 등 일반 백성들에 대한 質正을 통해 얻어진 현실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18세기에 간행된 老乞大諺解書인 《老乞大諺解》(平安監營本)(1745序), 《老乞大新釋諺解》(1763), 《重刊老乞大諺解》(1795 이후)의 좌측음에서는 入聲

이처럼 《翻老》 左右音의 차이는 주로 전사 방식과 음운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濁音이나 入聲 표기는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을 적용한 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여기에는 음운변화의 문제 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도 관여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濁音과 入聲의 左右音 표기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어 濁音의 左右音 표기에는 음운변화의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入聲의 左右音 표기에는 표기방식의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셋째, 우리는 방언 배경의 측면에서 左右音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中原音韻》(1324)의 音系基礎 문제에는 논란이 있으나 이를 통해 이미 中原을 포함한 北方漢語 지역에서는 14세기에 이미 濁音淸化和 入聲 소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그러나 《翻老》 좌측음의 기반이 된 《通放》 俗音이 기초하고 있었던 15세기 北方漢語의 언어 상황은 14세기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즉 1420년에 明朝는 吳方言 지역에 근접한 南京에서 北京으로 遷都하였고, 遷都하면 지배층이 대거 이

韻尾와 支紙真 三韻의 終聲 表記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기본적으로 《譯訓》의 正音을 반영해 주고 있다. 《老乞大新釋諺解》의 우측음에서는 見母系 구개음화 뿐만 아니라 日母의 변화, 撮口呼로의 변화와 기타 韻母의 변화 등 18세기에 일어난 음운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老乞大新釋諺解》가 時俗에 맞춰 漢語音이나 漢語原文을 개정하려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老乞大新釋諺解》의 우측음은 老乞大諺解書로는 최종본인 《重刊老乞大諺解》의 우측음과 音系면에서 일치를 보여 준다.

- 23) 韻書의 표기의 성격을 가지는 《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을 비교해보아도 濁音淸化의 변화는 분명히 감지되나 入聲韻尾의 소실과정은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다.
- 24) 《中原音韻》의 음계기초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볼 때 다음의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元代 大都話를 반영한다는 견해, 둘째, 中原 지역에서 폭넓게 통용되던 共同語를 반영한다는 견해, 셋째, 洛陽을 중심으로 하는 河南話를 반영한다는 견해, 넷째, 膠遼方言을 반영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어떤 연구에서도 《中原音韻》이 남방음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中原音韻》에서 “入派三聲”으로 처리한 것은 作曲의 편리를 위한 것이고, 당시 口語에서 여전히 入聲과 入聲韻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李啓文(1996:51) 참고.

주를 하기 때문에 遷都한 수도의 언어는 이전 수도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譯訓》 및 《通攷》가 편찬되던 15세기 중반은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통용된 北方官話에 南京語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⁵⁾ 遠藤光曉(1984:181-182), 薛鳳生(1992), 魯國堯(2003) 등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明代에 수도를 南京에서 北京으로 遷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官民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明代의 官話는 南京語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南京은 본래 吳方言 지역이었으나 열 개의 王朝가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구성이나 언어에서 北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 北方方言으로 변해갔다. 그런데, 明初 편찬된 《洪武正韻》이 濁音의 보존 등 주로 聲母 체계에서 吳方言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首都의 언어가 특정 方言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지는 않으나 당시 首都였던 南京에서 통용되던 언어는 여전히 지리상 근접한 吳方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譯訓》, 《通攷》의 俗音에 기반을 두고 있는 《翻老》 좌측음은 우측음보다는 南方語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²⁶⁾ 그러나 우측음의 聲調 상

25) 졸고(2002:90)에서는 元代 간행의 《古今韻會學要》 音系가 中原雅音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南宋末元初에 南宋의 수도 臨安에서 통용되던 通語를 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古今韻會學要》가 中原雅音 및 北方音의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南方의 通語에 기초하고 있는 현실은 通語나 官話의 기초가 특정한 한 방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전 首都語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15세기 明代의 官話 역시 北京語만이 아닌 南京語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26) 安奇燮(1988:97)에서는 《翻老》의 좌측음은 南方音의 반영이고 우측음은 순전한 北方音의 기록이라고 하고 있는데, 졸고(2004)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다. 필자는 여전히 《翻老》 左右音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通攷所制之字: 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체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南方音: 北方音”의 대립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安奇燮(1988)의 견해는 南方音의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본고 역시 좌측음은 15세기 당시의 北方音을 반영하지만 당시 北方漢語의 상황을 고려하면 南方音의 요소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비록 左右音이 각각 반영하는 音系의 시간상 차이는 60여년이나 당시 北方漢語에서 음운변화가 활발하게

황을 면밀하게 고찰해보면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나 調值 등에서 여전히 이러한 영향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다음에서는 北方方言의 하위방언 중 《飜老》에 나타난 漢語 聲調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方言들의 聲調와 그 調值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 5> 北方漢語 下位方言의 聲調와 그 調值²⁸⁾

調類 \ 調值	飜老 ²⁹⁾	北京	南京	濟寧	濟南	諸城	烟台	離石
陰平	高昇	55	31	213	213	214	31	224
陽平	低昇	35	13	52	42	53		44
上聲	低平	214	22	55	55	55	214	423
去聲	高平	51	44	312	21	31	55	52
入聲1	高		5					4
入聲2	低昇							213

일어났음을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음운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좌측음과 음운변화의 과정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는 우측음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左右音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中村雅之(2006b)에서는 舊入聲韻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飜老》 우측음은 南京官話의 영향을 받은 音形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崔玲愛(2006:117) 역시 좌측음(정음)은 전통관념이 세워진 15세기중엽의 北部官話 구어음(白讀)이고 우측음(속음)은 南部官話가 北部官話에 흡수되어 형성된 16세기초엽의 독서음(文讀)으로 표준음이라 하였다. 《飜老》 左右音의 入聲字 표기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측음이 文讀, 좌측음이 白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어서 左右音의 음계기초가 다르다는 이러한 견해에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明初 南京에서 北京으로 천도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南京語의 영향이 컸던 15세기중반의 北方音을 반영하고 있는 좌측음보다 16세기초반의 우측음에 南京語의 영향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고는 《飜老》 左右音 모두 南京語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며, 그 영향은 좌측음에 더 강하게 미쳤고 그것이 당시 北方漢語音의 상황이라고 본다. 이 문제 역시 이후 심도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한다.

27) 《飜老》에 나타난 聲調의 調值에 대한 기록은 入聲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老朴凡例 漢音條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우측음 뿐 아니라 좌측음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28) 본 표에서 제시되는 각 해당방언의 調類와 調值는 陳章太·李行健主編(1996)의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을 참고.

南京方言 聲調 체계에서 陰平이 하강조라는 점을 제외하고 陽平이 低昇調, 上聲이 低平調, 去聲이 高平調라는 점은 老朴凡例의 기록 및 《翻譯老》 우측음의 상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³⁰⁾ 이 調值가 現代方言의 것임을 고려할 때 近代 시기 이후 陰平의 변화 가능성도 충분하며, 老派 南京語의 경우 “陰平+陰平”의 연결에서 앞 글자가 “33”의 調值로 실현되기도 한다.³¹⁾ 또한 現代南京方言의 入聲은 入聲韻尾 -ʔ가 남아있으나 인접한 지역인 揚州, 鎮江 등 다른 江淮官話나 江蘇省 南部 吳方言보다 韻尾가 약화된 높은 調值의 상태를 보여주며 高母音 入聲韻인 [iʔ, uʔ, yʔ]에서 入聲韻尾가 더욱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翻譯老》의 入聲 상황과 유사하다.³²⁾ 現代漢語方言의 상황을 《翻譯老》와 직접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과 함께 現代南京方言과 《翻譯老》 聲調 체계에서 보여주는 유사성은 《翻譯老》 音系基礎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³³⁾ 결국 《翻譯老》의 濁音 및

29) 줄고(2008)에서는 凡例 등 여러 관련 자료와 北方漢語 聲調 체계 및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翻譯老》에 나타난 聲調 표기의 調值를 陰平 *45, 陽平 *13, 上聲 *21(3), 去聲 *55, 入聲 *5, *23으로 추정하였다.

30) Mei(1977:243)에 따르면 《西儒耳目資》에서는 聲調 高低(pitch)의 순서를 陰平을 중간 높이로 하여 가장 높은 것은 去聲이고 다음으로 높은 것은 入聲이며 가장 낮은 것은 陽平이고 다음으로 낮은 것은 上聲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언급은 老朴凡例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특히 去聲, 入聲이 높은 聲調이고 陽平, 上聲이 낮은 聲調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31) Mei(1977:255)에서는 《翻譯老》 聲調의 상황과 現代北京語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北方漢語는 近代 시기에 聲調 추이(tone shift)를 거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聲調 변화 과정은 각 調值의 변화에 자질(feature) 하나의 변경만이 관여되는 일종의 끌기 연쇄(pull chain)라고 하였다. 그러나 줄고(2008)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에 긴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이가 단기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32) 《南京方言詞典》, 劉丹青編纂, 江蘇教育出版社(1995) 참고.

33) 《翻譯老》에 나타난 聲調 현상의 방언 배경을 밝히는 데 現代漢語方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現代方言에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과거의 문헌에 나타난 漢語의 방언적 배경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聲調 상황이 北京語의 상황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南京語의 영향을 받은 15, 16세기의 北方官話를 반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이러한 영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北京語의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³⁴⁾ 이 문제는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보다 다각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翻老》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의 실제 표기 상황을 분석하여 左右音의 성격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좌측음에서의 全濁音 표기와 入聲韻은 우측음에서 淸音 표기와 陰聲韻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음운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표기방식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좌측음에서 全濁音을 표기하는 데 사용한 各自並書는 16세기초에는 폐기된 표기였기 때문에 初學者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측음에서 “ㄴ”이나 “ㄹ”과 같은 入聲韻尾를 표시하는 것도 國俗撰字之法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이다. 따라서 《翻老》에서 보여준 崔世珍의 표기 원칙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翻老》 편찬 당시 실제로 全濁音이나 入聲韻尾가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우측음에서 이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濁音과 入聲 표기는

다. 즉 현대어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당 문헌이 편찬되던 시기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翻老》에 나타난 聲調 현상은 16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비교적 현대에 가깝고 또한 이 시기 北方方言의 각 下位方言의 상세한 調值를 보여주는 자료가 거의 全無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現代方言資料를 이용하여 《翻老》와의 유사성과 특정 現代方言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34) 음운변화에 따른 音系의 형성은 그 방향성에 맞추어 지속되는데 비하여 다른 方言의 영향에 따른 변화는 일부 요소는 잔존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은 약화되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음운변화의 차이와 함께 표기방식의 차이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左右音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濁音과 入聲 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 16세기의 北方漢語音의 성격을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翻老》의 濁音 및 聲調 상황이 北京語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明初의 首都語인 南京語의 영향을 받은 15, 16세기의 北方官話를 반영했기 때문이고, 이후 이러한 영향이 약화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翻老》 左右音 성격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편찬자인 崔世珍은 《翻老》의 좌측음에 현실음의 성격을 가진 注音を 행함으로서 역시 자신이 편찬한 韻書인 《通解》의 正音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성격의 正音を 제시하였고 左右音에 표기방식과 음운변화의 차이를 교묘하게 반영함을 통해 당시의 會話書에 부합하는 새로운 注音 방식을 보여 주었다. 《翻老》에 나타난 漢語音은 漢語音韻史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朝鮮時代에 漢學者들이 漢語音을 표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漢語音에 대한 正音觀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는 데 자료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左右音과 관련된 문제 중 文白音과의 관계 및 “ㅇ”, “ங(藥韻)” 入聲韻尾 표기의 성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入聲 표기에서 《翻老》 우측음은 오히려 文語音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들은 《翻老》에 나타난 入聲 표기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더욱 엄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 參考文獻 >

姜信沆, 《四聲通解研究》(서울: 新雅社), 1973.

- 姜信沆, <翻譯「老乞大·朴通事」의 音系>, 《震檀學報》 38, 1974.
- 김무림, <『사성통고(四聲通攷)』 범례의 고찰>, 《주시경학보》 13, 1994.
-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3.
- 리득춘, 《조선어 한자어음 연구》(서울: 박이정), 1994.
- 朴炳采, 《洪武正韻譯訓의 新研究》(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3.
- 愼鏞權, <《古今韻會舉要》研究>, 南京大學 博士論文, 2002.
- 愼鏞權, <《古今韻會舉要》의 入聲韻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어학》 37, 2003.
- 愼鏞權,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文學》 42, 2004.
- 愼鏞權,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 聲調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中國文學》 57, 2008.
- 安奇燮, <朝鮮時代 對 漢語 譯音書의 正音·俗音 성격의 再考 -序·凡例 上의 기술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10, 1988.
- 유재원, <조선 역음서의 정속음과 좌우음의 관계 및 성격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30, 2002.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서울: 韓國文化研究所), 1972.
- 李敦柱, 《韓中漢字音研究》(서울: 태학사), 2003.
- 張馨實, 《『翻譯老乞大』의 中國語 注音에 對한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 論文, 1994.
- 鄭 光,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中國語音 表記 研究 -四聲通解 歌韻內 諸字의 中聲表記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 64, 1974.
- 崔玲愛, <「翻譯老乞大」入聲字의 훈민정음표기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37, 2006.
- 金周生, 《宋詞音系入聲韻部考》(臺北: 文史哲出版社), 1985.
- 康寔鎭, 《「老乞大」「朴通事」研究》(臺北: 臺灣學生書局), 1985.
- 李啓文, <近代漢語共同語入聲字的演變>, 《中國語文》 1, 1996.
- 魯國堯, <明代官話及其基礎方言問題>, 《魯國堯語言學論文集》(南京: 江

蘇教育出版社), 2003.

王力, 《漢語語音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薛鳳生, <方音重迭與普通話文白異讀之形成>, 《紀念王力先生九十誕辰文集》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2.

遠藤光曉, <《翻譯老乞大·朴通事》裏的漢語聲調>, 《語言學論叢》 13(北
京: 商務印書館), 1984.

遠藤光曉, 《《翻譯老乞大·朴通事》漢字注音索引》(東京: 好文出版), 1990.

朱星一, <從《翻譯老乞大·朴通事》左側音看近代漢語入聲>, 《古漢語研究》
2, 2000a.

朱星一, 《15、16世紀朝漢對音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0b.

竺家寧, <宋代入聲的喉塞音韻尾>, 《聲韻論叢》 第二輯, 1994.

中村雅之, <翻譯老乞大朴通事の左側音の入聲表記について>, 《KOTO-
NOHA》 41, 2006a.

中村雅之, <翻譯老乞大朴通事の右側音>, 《KOTONNOHA》 42, 2006b.

Tsu-lin Mei, "Tones and tone sandhi in 16th century Mandari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5:2, 1977.

《中原音韻》(1324年), 鐵琴銅劍樓藏元刊本.

《洪武正韻譯訓》(1455年), 高麗大學校出版部 影印本(1973).

《翻譯老乞大》(1517年 이전), 卷上下 亞細亞文化社 影印本(1980).

_____, 卷上 中央大學校出版部 影印本(1972).

_____, 卷下 仁荷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影印本
(1975).

《翻譯朴通事》(1517年 이전), 卷上 慶北大學校大學院 影印本(1959).

《四聲通解》(1517年), 奎章閣所藏本.

《老乞大諺解》(1670年),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3).

《老乞大諺解》(平安監營本)(1745年序),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3).

《老乞大新釋諺解》(1763年), 卷一(零本), 미국 컬럼비아대학 所藏本.

- 《朴通事新釋諺解》(1765年), 서울大學校 奎章閣 影印本(2004).
《重刊老乞大諺解》(1795年 이후),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本.
《漢語方音字匯》,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 語言學教研室編, 文字改革出版社(1989(第二版)).
《漢語方言概要》, 袁家驊等, 文字改革出版社(1989(第二版)).
《南京方言詞典》, 劉丹青編纂, 江蘇教育出版社(1995).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 陳章太·李行健主編, 語文出版社(1996).

<中文提要>

朝鮮中宗時期的漢學家崔世珍, 參考《老乞大》舊本對《老乞大》漢語原文進行了諺解, 這就是第一本老乞大諺解書《翻譯老乞大》(簡稱《翻老》)。這本書是在每一個漢字下面用韓文標注了左右音。這些左右音各用不同的轉寫方法標注了漢語音。認為左右音標注方法不同的觀點, 為揭示左右音的性質, 提供了一個很重要的線索。標注左側音時, 用《通考》的字體, 把本來的語音標注得很準確, 採取這一措施是為了防止因按照國俗撰字之法標注右側音而可能產生的對漢語語音的誤解。不過只從精密轉寫與粗略轉寫的角度, 是很難說明左右音的區別的。左右音之間的區別, 可以分成三個類型。一是反映精密轉寫與粗略轉寫之差異的語音, 如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齒音系字的聲母注音等都屬於這一類型。二是反映音韻變化之差異及注音方法之差異的語音, 如濁音或入聲注音等都屬於這一類型。三是只反映音韻變化之差異的語音, 如歌戈韻中的韻母變化和濁上變去等就屬於這一類型。其中, 濁音清化和入聲變化在漢語音韻史上的地位非常重要, 即使的確發生了濁音清化或入聲消失的現象, 如果其變化還沒結束, 那麼具有正音性質的左側音是很難完全接受這些變化的。諺音條的有關記錄, 立足同一個側面, 去考察了全濁音注音的問題與終聲注音“ㄹ, ㄴ”的問題。從這段記錄我們可以了解到, 作者以這種方式注上左右音, 並不是為了要表示左側音保留

了所有的濁音，而右側音都已經清化的現象。當時的漢語初學者不易掌握漢語發音，為了使漢語注音通俗易懂，於是在注右側音時，舉了一個全濁音注音的例子，而這個例子是應用當時新制定的國俗撰字之法的例子。而從北方方言音韻史的角度來考察，就會發現《翻譯老》中出現的入聲注音情況，不僅很難令人理解，而且也很難把握所反映的是哪一個方言的特點。特別是標注《翻譯老》右側音時，注上了兩種入聲，針對這個現象，我們要考察其原因，還要細致地考證其所反映的語言現象。由此可見，上述情況不僅與音韻變化有關，而且還與注音方法也有關。因此，為揭示《翻譯老》中左右音的性質，濁音和入聲注音情況是關鍵性的。考證《翻譯老》的濁音注音情況和入聲注音情況，需要非常嚴密細致的研究，本文中對有關濁音和入聲問題的幾個問題進行探討。這些現象既反映精密轉寫情況，也反映音韻變化結束以前的狀態，所以可把它用作一個資料，來推算北方漢語的濁音與入聲完全消失的時期。

주제어 : 《翻譯老乞大》, 左右音, 濁音, 入聲, 注音方法, 音韻變化

